

Maison marie claire

2025 JUNE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건축가 가브리엘 주아노가
설계한 전원 속 안식처

INSPIRATION
정원에서 만난 루이 비통 주얼리

FOCUS
런던 크래프트 위크

ART
이슬람의 문화와 예술

ITEM
크리스털 홈 바
플라워 터치

2025 MILAN DESIGN WEEK

푸오리 살로네 트렌드, 뉴 아웃도어 퍼니처,
에우로 루체 하이라이트, 디자이너 인터뷰

정가 10,000원





10 Sleep Economy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이 가장 패셔너블한 공간으로 떠올랐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디자인과 감성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른바 '슬립 이코노미'는 침대, 침구, 조명, 향, 사운드, 테크,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는 2024년 그 규모를 약 5840억 달러(약 800조원)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했다. 마리메코는 아티스트 라일라 고히라와 협업해 '침대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제로 밀라노의 테아트로 리타에 거대한 침대를 설치하고, 잠옷과 침구,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캡슐 컬렉션을 통해 침실을 하나의 감각적 풍경으로 연출했다. 이탈리아 침대 브랜드 볼잔은 네 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감각적 헤드보드 전시를 구성했으며, 각기 다른 재료와 조형이 침실을 정서적 풍경으로 탈바꿈시켰다. 슬립 이코노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이는 수면이라는 가장 사적이고도 본질적인 행위를 통해, 현대인이 삶의 리듬을 되찾고 감정을 정돈하며 다시 나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1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가 모로소를 위해 디자인한 세도나. **2** 커다란 침대에 누워 침구 컬렉션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한 마리메코×라일라 고히라 전시장. **3** 오묘한 옐로 컬러가 강렬한 인상을 준 볼잔의 전시장. 줄리 리소츠의 백드롭이 컬러 대비감을 이루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4** 마티노 캬퍼가 볼잔을 위해 디자인한 피오코.

